

# 日本 “富士山” 온통쓰레기

## 올해만도 빈깡통등 140t 수거

멀리서 바라다 보는 후지(富士)산은 깨끗하기 이를데 없다. 산꼭대기에 덮혀있는 흰눈처럼 순결하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쓰레기로 어지러운 지경이다.

일본의 상징, 후지산을 찾은 관광객은 올해만도 3백60만평을 헤아린다. 2개월간의 여름등 반시즌에 근 20만명이 높이 3천7백76m의 후지산 산정에 올랐다.

이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발자욱이상의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난다.

『후지산은 신성시되어 왔다. 그것을 더럽히는 것은 죄로 여겨져었다. 그러나 지금은 후지산이 관광지 되고 말았다』고 후지산 보호협회의 와타나베 요사이키 회장은 말한다.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는 정결하기로 정평이나 있지만 그들의 호수와 해안은 플라스틱과 종이쓰레기로 더럽혀져 가고 있다.

경치 좋은 곳은 들끓는 인파로 점차 오염돼 가고 있다.

와타나베씨는 많은 사람들이 산의 쓰레기를 그저 하나의 경치거리로 흘려 너져버리는 것 같으면서 『후지산이 이 지경이 되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개탄한다.



◇日本 후지산전경

日人 “정결하다” 공중도덕 먹칠  
신화적인 산도 현대화에 “오염”

수세기동안 후지산은 신들과의 가교로 믿어져 왔다. 그래서 후지산에 오르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사로 여겨졌었다. 일본의 많은 예술가들이 이 후지산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후지산의 신화적인 의미도 이제는 현대화와 함께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

후지산은 동경으로부터 버스로 4시간 거리. 산 중턱까지 버스가 올라간다. 거기서 정상까지 등산하는 데는 6~7시간이 걸린다.

『후지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등산가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다. 그들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기위해 밤에 올라간다. 도중에 많은 것을 먹는데 사방이 어두워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마구 던져버린다』고 와타나베씨는 말한다.

와타나베씨의 모임은 올해 3만9천명의 지원자들을 동원, 후지산에서 모두 1백40t의 쓰레기를 제거했는데 산길에 버려진 쓰레기의 대부분은 빈 깡통, 담배꽂초, 사탕봉지, 플라스틱 도시락 등이었다.

여름철마다 후지산에 버려지는 깡통은 2~3백만개로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개 호수 근처와 등산로를 따라 수백개의 자동 깡통분쇄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헛수고로 돌아갔다. 자동 깡통분쇄기들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산 밑에 있는 후지 요시다시의 관광담당관 와타세 에이치씨에 의하면 지난 7월1일부터 8월26일까지 여름 등산시즌에 19만6천4백75명이 후지산에 올랐다. 지난해는 그 수가 약 18만2천명이 이르렀다.

〈光州日報 91. 11. 21〉